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29일(금) 총 8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항공과	담 당 자	• 공항시설담당 정상주 ☎440-4831 • 담당자 홍인기 ☎440-483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백령공항 건설 · 2027년 개항에 최선
- 백령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협조 당부 -
-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 균형발전 등 위해 백령공항 건설 필요 -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오는 11월 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심의 통과에 커다란 기대를 품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찾아가는 시장실’의 일환으로 10월 29일 백령면사무소에서 열린 ‘박남춘 시장과 백령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에게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1일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자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이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 254,000㎡에 1,7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주로 1,200m(폭 30m), 관제탑, 여객터미널을 갖춘 50인승 민간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에서 두 번 좌절됐으나,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백령공항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비용편익(B/C)이 2.19로 높게 나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2011~2025)’에 백령공항을 최우선 과제로 요청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2021~2025)’에 백령공항 건설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건설공사 등이 반영돼 법적 시행 근거가 마련됐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공항을 공공시설 범위에 추가하려는 국회의 법 개정 노력도 심의 통과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까지 비행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 현재 여객선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령도는 물론 대청도와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3개 섬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지정된 백령·대청권역 국가지질공원과 천혜의 자연경관 등 뛰어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가 가능해 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백령공항이 2027년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주변 지역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숙박, 관광, 레저, 의료 등 공항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꼭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백령공항과 주변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를 유도해 백령도가 제2의 제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참고 >
1.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개요
 2. 백령공항 위치도 및 배치계획(안)
 3.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 추진배경(필요성)

- (정주여건 개선)
 -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 접근성 제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 관광사업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인천에서 선박으로 4~5시간 소요(결항률 18%, 지연률 11% 이상)
- (1일 생활권 보장) 야간 운항 통제 및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 또는 지연운항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 해소
 - * 병원 진료, 군장병 외출·면회 등에 최소 2~3일이 소요되어 생활 불편
- (주민안전 확보) 해양경찰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 서해 5도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 보호
 - *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양사고 신속한 대처, 구난임무 등 수행 가능

□ 사업 개요

- (위 치) :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254,000m²(76.8천평)]
- (총사업비) : 1,740억원(국비 100%, B/C 2.19)
- (사업기간) : 2016. 11. ~ 2026. 12.
- (사업규모) : 50인승 민간소형공항
 - 활주로,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

□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 ‘14. 8. :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소형공항 개발 건의(옹진군 →국토부)
- ‘15. 5. : 공항부지 무상 제공 승인 의결(옹진군 의회)
- ‘16. 5.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언급
- ‘16. 11. ~ ‘17. 11. : 백령도 소형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시행(국토부)
 - (분석결과) : B/C 2.83, 수요예측(2025년 기준) ≍ 1.2만회 운항/년, 여객 48만명/년
 - (보완결과) : B/C 2.19, 수요예측(2025년 기준) ≍ 1.2만회 운항/년, 여객 48만명/년

- ‘18. 1. :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협의(국토부 → 국방부)
- ‘19. 1. : 국방부 협의의견 회신(국방부 → 국토부)
- ‘19. 3. ~ : 국토부 예타 진행 건의(시 → 국토부)
- ‘20. 1. :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 ‘20. 2. :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예타 신청(안) 원안가결
- ‘20. 2. :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국토부 → 기재부)
- ‘20. 5. : 제1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 ‘20.11. :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국토부 → 기재부)
- ‘20.12. : 제1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 ‘21. 4. : 백령공항 건설 필요성 전문가 토론회 개최(용진군)
- ‘21. 4. : 백령공항 예타 통과 염원 주민청원서 제출(용진군 → 기재부)
- ‘21. 5. : 백령공항 관련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 ‘21. 7. : 백령공항 관련 예타 선정 대응 연구용역 시행(시·용진군)
- ‘21. 9. :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국토부)
- ‘21.11. : 제6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국토부 → 기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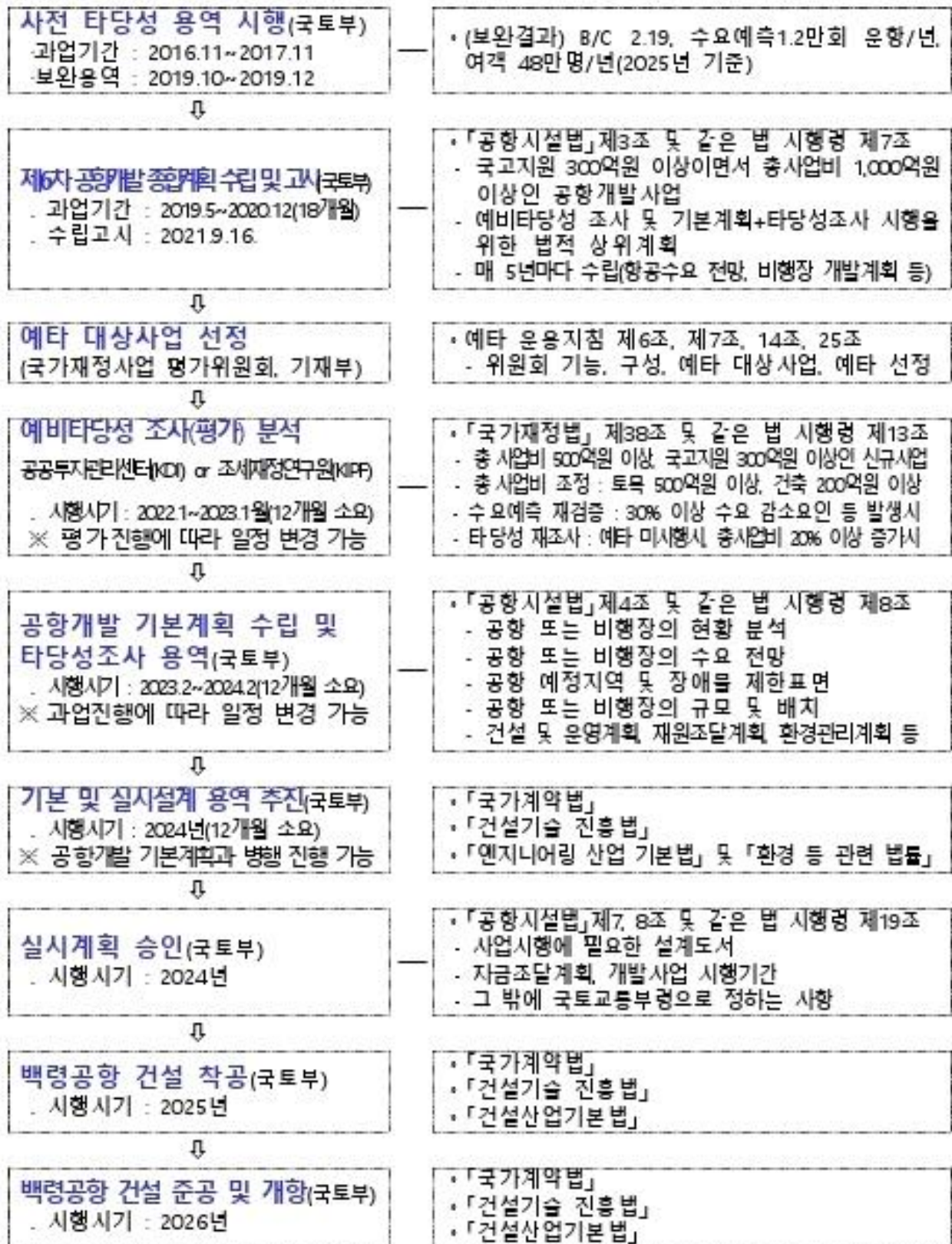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향후 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체계
 -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운용지침
 - (대상)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 국고지원 30억원 이상 신규사업
 - (평가방식)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중심으로 종합평가(AHP 분석)
 - (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중 선택 추진
- (단기계획) 예타 신청, 평가 진행,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 시행

- 예타 대상사업 신청, 선정 및 평가진행(국토부→기재부, KDI) : ‘22. 1월
- 백령공항 개항 대비 주변 발전계획 수립(市) : ‘22. 3월 ~ ‘23. 3월
 - * 백령공항 개항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계획 등 분야별 대응 및 발전전략 수립 필요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국토부) : ‘23. 2월 ~ ‘24.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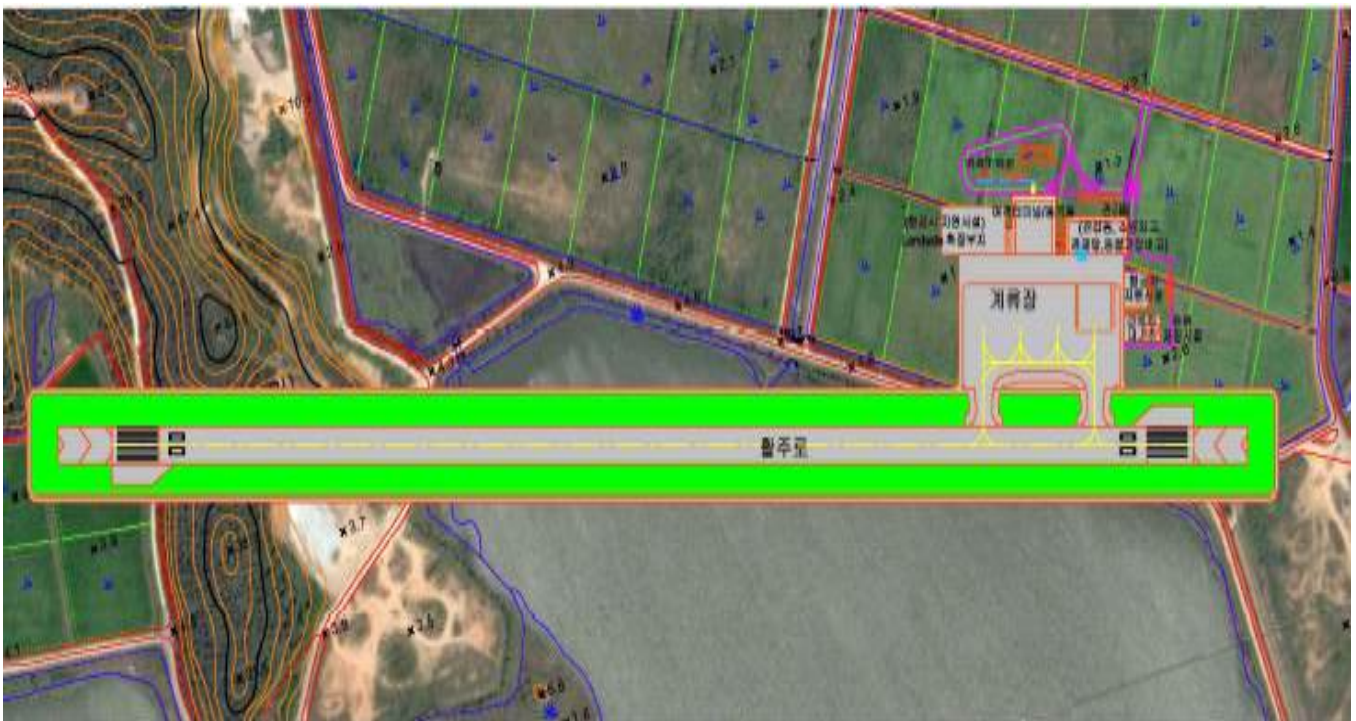
※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절차도 〉



참고 2

백령공항 위치도 및 배치계획(안)



※ 자료출처 : 백령도 소형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2017.11.)

참고 3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